

2018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8차)

1. 일 시 : 2018년 12월 26일(수) 11 : 00 ~ 12 : 20

2. 장 소 : 본부회의실 1

3. 참석자

구 분	위 원	간 사	배석자
참 석	최규환, 홍순구, 이상완, 황지현 김근홍, 박윤철, 황정현, 이동규	박진호	박석강, 한규석, 김상현
불 참	김동규, 정영훈		

4. 회의 안건

- 학사학위 취득 유예비 책정(안)

5. 회의 내용

- 간사는 개회를 선언함
- 기획처장은 위원장이 개인 사정 상 참석하지 못함을 설명하고 위원장을 대신해서 학생처장이 금일 회의를 주관할 것을 알림
- 학생처장은 학사학위 취득 유예비 책정(안)을 상정하고 예산팀장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함
- 예산팀장은 학사학위 취득 유예비 책정(안)을 자세히 설명함
- 예산팀장은 부산대학교가 10%, 부경대학교가 12.5%의 학사학위 취득 유예비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들에게 학사학위 취득 유예비 부과에 대한 심의를 부탁함
또한,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졸업 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본교도 학사학위 취득 유예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비용 등의 사유

로 졸업 유예 제도를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임을 설명

- 대학 측 위원들은 예산팀의 제안대로 7% 내지 8%의 학사학위 취득 유예비 부과를 학생 위원들에게 제안함
- 학생위원은 학사학위 취득 유예비 부과 기준에 대해 질의함
- 예산팀장은 도서관 등 각종 시설사용료,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학생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근거로 답변함
- 학생위원은 신문방송학과의 경우 등록금과 교구재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학사학위 취득 유예비가 높게 책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냄
- 예산팀장은 신문방송학과의 등록금은 실험실습비 이외에 수업을 위한 비용이 타 수업보다 많이 발생함을 설명하였으며, 학사학위 취득 유예비 책정이 있어서 계열별 차등에 학생들의 불만이 있다면, 전 계열 20만원으로 책정을 하는 것은 어떤지 건의함
- 재무처장은 학생들마다 시설이나 프로그램 이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입학 때부터 고지해왔던 등록금을 베이스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냄
- 외부 전문가 위원은 모든 계열에 동일한 정액 책정보다는 등록금에 기반을 두어 학사학위 취득 유예비를 정률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냄
- 학생위원은 학사학위 취득 유예비 책정의 취지나 의의를 보았을 때, 5%를 책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의견을 냄
- 대학 측 위원들은 학생위원들과 의견 절충을 위해 5.5%의 학사학위 취득 유예비를 제시하고 이에 동의함
- 간사는 대학의 학사 학위 취득 학사학위 취득 유예비를 등록금의 5.5%로 결정하는데 대해 추가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고, 참석위원 전원은 이의 없이 찬성함
- 학생·취업지원처장은 대학의 학사학위 취득 유예비를 등록금의 5.5%로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위원들에게 다른 건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함

5. 결정사항

○ 대학의 학사학위 취득 유예비를 등록금의 5.5%로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

※ 계열별 학사학위 취득 유예비

(단위 : 원)

구 분	학사학위 취득 유예비 책정액	비고
인문.사회	157,000	
신문방송학과	165,000	
아동학과(아동가족학과)	186,000	
수학과	171,000	
이학.체육	186,000	
공학	213,000	
유기재료고분자공학과	201,000	
계약학과	126,000	
예능	217,000	
의예	237,000	
의학	267,000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8. 12. 26.

위원장 김 동 규 (인) 위 원 김 근 흥



위 원 최 규 환 (인) 위 원 박 윤 철



위 원 홍 순 구 (인) 위 원 황 정 현



위 원 이 상 완 (인) 위 원 정 영 훈 (인)



위 원 황 지 현 (인) 전문가 이 동 규

